

春季 COMDEX '85의 動向

— 美国의 Computer展 —

1. PC/AT互換機

美国의 컴퓨터 쇼인 春季 COMDEX가 지난 5월 6일부터 4일간에 걸쳐 캐시아스 아틀란타에서 개최되었다. IBM, PC/AT Compatible機가 속속 등장해 있는 가운데 IBM社는 하드웨어를 거의 無視, 오리지날 소프트웨어에 전력 투구하고 있어 소프트웨어市場에서 군림할 의향임을 비치고 있었다.

IBM社는 작년 8월에 강력한 新型멀티 유저 퍼스컴 PC·AT를 발표, 同市場에서 호평을 얻은 바 있으나 供給에 대응치 못하고 있어 아직 大市場 형성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Compatible 메이커 각社는 예상외로 급속히 IBM社를 뒤쫓고 있어 AT Compatible機를 연이어 출품하고 있다. AT를 둘러싼 商戰이 금년 후반부터 활발해져 퍼스컴市場이 새로운 局面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AT Compatible機를 前面에 내세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가 콤팩트社이다. 業界 전체가 低迷 현상에서 맴돌고 있는 가운데 同社

는 1/4분기에 売出 54%, 利益 42%의 대폭적인 増収增益을 기록, 현재 가장 콧김이 센 퍼스컴 메이커의 하나이다. 同社의 로드 캐니온 社長이 이번 COMDEX의 基調演說者로 선택된 것은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캐니온社長은 퍼스컴 業界가 아직 初期 단계가 있어 通信과의 統合 등을 통해 이제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했다.

콤팩트社의 AT Compatible機는 가격에서 AT를 다소 上回하나 기능적으로는 AT를 앞서고 있다. 出荷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Televideo社도 AT Compatible機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IBM AT의 6 MHz Intel 80, 286 MPU, 512KB One Board Memory에 대해 Televideo製는 8 MHz 80286, 640KB One Board Memory, 더욱이나 Serial포트, Parallel 포트, Monochro Graphics를 각각 標準裝備하고 있다.

FD (Floppy Disk) 비전 3,390弗, HD (Hard Disk) 비전 4,795弗로 가격에 있어서도 IBM社를 2 할 전후 하회하고 있다.

이밖에 케이프로, NCR, Zenith 등 각 社에서도 AT Compatible機를 FD 비전 4,000弗 전후, HD 비전 5,000~6,000弗로 발표하고 있다.

PC/AT를 둘러싼 周辺機器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Control Data (CDC)社는 AT 대상으로 하드디스크裝置와 스트리밍 테이프 裝置를 각각 출품했다.

미디어 메이커는 AT 대상으로 超薄型 高密度 5.25인치 FD를 強調, 연이은 互換機의 등장으로 需要增加가 예상된다. TDK에 의하면 AT의 発売가 계기가 되어 高密度 FD가 신장되고 있어 Compatible 메이커들이 연이어 同 FD를 이용한 機種을 내놓으므로써 더욱 높은 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Maxell에서도 業界 전체적인 需要低迷 현상으로 최근 수개월간은 高密度 FD의 売出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AT Compatible機가 연이어 등장하므로써 다시 需要에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IBM 对 ATT

ATT(美國電話電信公社)가 컴퓨터事業에 참가한 지 약 1년이 경과했다. 작년의 春季 CO-

MDEX에서 미니컴 3B 시리즈를 출품, 그후 IBM Compatible 퍼스컴, 올해에 들어와서 UNIX 퍼스컴을 発売했다. 市場調査会社인 Infocorp에 의하면 작년도 ATT의 컴퓨터壳出은 4만 9,780대(10억 6,300만弗)로 추정되어 壳出構成률은 불과 3.2%에 불과했다. IBM 壳出의 42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역으로 살펴보면 불과 1년 만에 Apple社 수준을 기록한 ATT는 역시 巨人이며 資金, 技術, 販売力 등 모든 면에서 IBM社와 対等하게 싸울 수 있는 메이커로는 현재의 경우 ATT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COMDEX에서도 IBM에匹敵하는 대규모적인 展示를 가졌던 것은 역시 ATT이며 양쪽 다같이 巨大한 부스를 두개씩 설치했다. 그러나 그 展示 내용은 IBM이 하드웨어를 거의 無視, Application Software의 소개에 전력 투구한 데 대해 ATT는 하나의 부스를 하드웨어,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로 나누었다. 더욱이 IBM이 外部 소프트웨어를 배제하고 오리지날 일색으로 전시한 데 대해 ATT는 부스의 첫머리에 外部 소프트웨어를 전시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이미 퍼스컴 市場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IBM과 이것을 허물어 버리려는 兩社의 戰略 차이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40% 이상의 市場 점유율을 갖고 있는 IBM이 다음으로 육심을 내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市場이다. 同社는 퍼스컴 소프트웨어에서는 아직 5%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것을 하루 빨리 끌어 올리는 것이 同社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에 ATT와 동시에 發売된 Top View는 금후의 IBM의 소프트戰略上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본다. Top View는 複數의 어프리케이션 소프트를 統合하는 인터페이스 소프트라고 하는 것이며 Window를 이용하여 画面上에서 프로그램으로부터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을 OS(Operating System)에도 응용하면 複數의 OS를 서포트하는 Multi OS가 가능해지며 IBM社에서는 次世代機에서의 實用化를 목표로 OS를 개발중에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IBM의 소프트 攻勢에 대해 大소프

트 하우스 各社는 더욱 高度의 소프트나 販売 강화에 의해 IBM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Digital Research는 Graphics 유저 인터페이스 GEM에 바탕을 둔 새로운 어프리케이션 소프트를 연이어 發売, GEM 영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슈톤테트社는 日本 SE그룹의 子会社인 소프트웨어 인터내셔널과 합併会社인 日本 아슈톤테트를 설립하는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홍콩, 싱가폴에서 각각 總販契約을 체결, 이들 나라에서 본격적인 판매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社도 IBM PC 需要者 대상으로 複數의 데이터 通信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를 발표, 同소프트에 관해 京Cera와 独占 라이센스 契約을 맺었다. 京 Cera는 同소프트를 1200보의 新型 인텔리전트 모뎀에 채용하고 있다.

3. 周辺機器 포터블機

컴퓨터 本体에서는 苦戰하고 있는 日本 메이커들도 OEM, 周辺機器의 비지니스에서는 美國의 컴퓨터業界에 확고한 위치를 굳히고 있다.

IBM社는 이와 같은 周辺機器 분야에서도 외부 Supplier로부터의 독립을 겨냥하고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에 이어 프린터에서도 自社제품 2機種을 발표, 日本 메이커에 의한 周辺機器市場支配에 대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IBM社는 Epson社로부터 Dot Matrix 프린터의 供給을 받고 있었으나 이를 중지하고 自社에서 개발한 Dot Matrix 프린터(표준 가격 549弗) Inkjet 프린터(同745弗)의 販賣에 나서고 있다. 현재 Epson社는 美國의 프린터市場에서 30%에 가까운 シェ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IBM社는 불과 수%에 지나지 않는다. IBM社는 이같은 굴욕을 씻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州 샬럿工場에 최신 설비를 투입하여 전면 自動化에 들어 가서 日本製 프린터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IBM社는 20%정도까지 シェ어를 신장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Computer Graphics가 진전되는 가운데 컬러

<P. 57로 계속>

ra FA72가 스타상품이었고 계측, 산업용기기, 무선BTX monitor, analog 및 digital 계측 기술 소개를 통하여 전자계측분야의 강화를 내걸고 있었다. Philips는 oscilloscope, logic analyzer, multimeter, signal generator, CPU지원 system 등 계측제어 전반을 소개하고 있었고 일제 기업들도 참가하고 있었다.

서독전자공업중앙연맹(ZVEI)에 따르면 서독

의 전자공업생산은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금액으로는 1,100억mark의 규모. 이는 전 세계의 약 7%에 해당하며 유럽의 35%로서 프랑스, 영국의 각 20%를 누르고 제1위의 자리 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두개의 Hannover Messe」도 서독뿐만 아니라 세계의 Electronics산업계로부터 계속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P. 51에서 계속〉

프린터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三菱電機는 Thermal Transfer 컬러프린터에 Serial 타이프의 小型機를 추가하여 주목되고 있다. 同社는 이미 中型라인타입을 보유하고 있으나 新機種은 무게 7.5kg로 라인타입의 반 정도의 輕量化를 실현시키고 있다. 東芝도 中型 라인 타입인 Thermal Transfer 컬러 프린터를 출품했다.

그 밖에 Sharp, Epson, Brother, Canon, 沖電氣, 伊藤忠 등이 Dot Matrix, Inkjet Laser라는 각종 프린터를 갖추고 있어 동분야에 있어서의 日本 메이커의 저력을 나타내 주고 있다.

IBM社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 포터블 컴퓨터는 고참메이커들이 通信 기능을 중심으로 高附加価値化를 추진시키는 한편 신규 메이커들도 잇달아 同컴퓨터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Canon케이프로, TAVA 등 각사에서 80字×25行 液晶디스플레이를 搭載한 포터블로 同市場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케이프로 제품은 워드프로세싱, 데이터 베이스, 스프레드 시

트라는 소프트를 bandle化하여 표준가격으로 2,000弗을 밑돌고 있어 환영을 받고 있다.

통신과의 統合이라는 의미에서 松下電器, Northern Telecom社는 각각 新型 低価格 디스플레이폰을 발표했다. 松下 제품은 電子メール, ディテレ비이스 등의 需要를 겨냥한 것으로 1,500弗이라는 低価格으로 代理店으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三洋電機는 新型 IBM Compatible 2機種을 추가하여 컴퓨터 本体에 대한 판매에 정면으로 나서고 있다. 同社풀 라인을 갖추므로써 Compatible路線을 견고히 하겠다는 意向으로 ATT Compatible機에 대해서도 근간 발표할 계획에 있다.

이번 春季 COMDEX는 750個社에서 출품, 5만 1,500명의 來場客으로 성황리에 幕을 내렸으나 내년도에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올해와 같은 장소인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개최된다.